제1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9월 4일에서 11일까지 8일간 제191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날,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기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수범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천 5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 증가한 290억 원이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그간 추진사업들을 정리하고 사업들이 모두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심도 있는 안건 심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7, 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9일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총 4건이며,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제191회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는 박삼례 의장

제191회 임시회 상정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광진구재무회계규칙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등을 편성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가결(의견없음)
☞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건립이 구립에서 국립으로 사업계획 변경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건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고구려박물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속되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받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광진구의회는 제191회 임시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김기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수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9, 10일 양일간 2, 3차 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김기선 위원장

▶김수범 부위원장

이번 추경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 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역점을 두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모습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관련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계자 방문

안문환 부의장이 발의한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광진경찰서 및 북한 이탈 주민 단체 관계자가 의회에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례 제정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복리향상과 광진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진구의회 의원들과 광진경찰서 및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관계자와 기념사진 촬영